

26조2천억 추경...3천580만명에 최대 60만원 준다

정부 '중동전쟁 극복 추경안' 의결

소득하위 70% 10만~60만원 지원금

석유 최고가격제·유류비 경감 5조

지방 재정도 약 10조원 대폭 보강

'소득하위 70%' 국민 약 3천580만명에 1인당 10만~60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된다.

중동전쟁발 고유가에 대응하는 피해지원금 성격으로 총 4조8천억원 규모다. 지난해 추경 사업 '민생회복 소비쿠폰'(12조1천709억원)의 40%에 해당하는 '현금'이 풀리는 것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해 유류비·교통비 경감 등 에너지 부담 완화에도 약 5조원이 배정됐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웃

'고유가 피해지원금' 개요

총 26.2조 원 규모 2026년 추경예산안 중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총 4.8조 원)' 지원 내용

·지급 방식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 선택 ·사용처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

	1차 우선지급		*2차 지급
	차상위·한부모 (36만 명)	기초수급자 (285만 명)	소득하위 70% (3,256만 명)
수도권	45만원	55만원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50만원	60만원	20만원
인구감소지역 특별			25만원

우대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인구감소지역 49개 시군

특별 균형발전 낙후도평가 하위 40개 시군

연합뉴스 자료: 기획예산처

긴급하게 재정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직접 지원을 통한 '경기 보강' 기능에 무게가 실렸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첫 추경안이자, 작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두번째 추경안이다. 정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총지출은 73조1천억원으로, 본예산(72조9천

억원) 대비 2조2천억원 늘어났다. 이와 별도로 국제 상황에 1조원이 쓰인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다. 여야는 시정연설(4월2일)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를 거쳐 4월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8천억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 국민, 약 3천 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을 지급한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직접 지원금이다.

소득수준과 더불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85만명)에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36만명)에는 45만~50만원, 나머지 소득하위 70% 계층(3천256만명)에는 10만~25만

원씩 지원된다. 지난해 추경 당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 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뒷받침하고 나프타(납사) 수급 위기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5조원을 배정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p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능력과 어업인에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지방재정도 대폭 보강된다. 내국세 증가분에 법적으로 연동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9조7천억원가량 늘어난다. 기획처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급급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이 강기정 예비후보(광주시장 직무정지)를 비롯한 지지자 100여명과 함께 31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정훈 국회의원실 제공)

신정훈·강기정, 단일화 후 첫 공동 행보

남광주시장 방문·5·18묘지 참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이 강기정 예비후보(광주시장 직무정지)와 단일화 이후 첫 공동 행보에 나섰다.

신 의원과 강 예비후보는 31일 남광주시장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민생과 민주화의 가치를 강조했다.

먼저 신 의원과 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남

광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현장 민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한 상인이 "먹고 사는 게 힘들다. 잘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하자, 신 의원은 "강 예비후보와 힘을 모아 더 좋은 전남·광주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강 예비후보를 비롯한 지지자 100여명과 함께 참배했다.

신 의원은 참배 이후 "우리는 정의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함께해 왔다"며 "더 나은 전남·광주

를 만들겠다는 신념도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번 통합시장은 사·도민을 위한 의미이자 이재명 정부의 초석이 되는 승부"라며 "부강한 전남·광주로 가는 변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배 현장에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의 만남도 이뤄졌다. 용 대표는 신 의원과 손을 맞잡으며 "강 예비후보와 단일화 소식을 들었다.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번 일정은 단일화 이후 첫 행보를 민생 현장과 5·18민주화의 상징 공간에서 시작하며 통합과 변화의 메시지를 함께 드러낸 행보로 풀이된다. /변은진기자

올해부터 '5월1일'도 쉰다

'노동절 공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부터 5월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노동절은 1981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법안이 국무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다. /김진수기자

▶1면 '정책 실종'서 계속

그러자 김 후보는 "의전하고 찬양을 구별하지 못하느냐"며 "대통령 방문에 따른 의전적 발언일 뿐이었다. 도지사는 예산을 따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몇 가지 SOC 사업을 약속받은 만큼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이에 신 후보까지 가세해 "정체성에 의심이 갈 정도로 과도한 찬양 발언이 있었다"며 "민주당 도지사라면 민주당 정책을 이해하고 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토론 말미에는 과거 사건과 경선 과정까지 거론되며 공방이 격화됐다.

김 후보는 신 후보를 향해 "보조금 사건으로 형을 받았고 이후 사면복권을 받았다"며 "어떻게 사면복권이 이뤄졌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직격했다. 신 후보는 "검찰이 프레임을 짜서 만든 정치적 사건"이라며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탐원으로 무고함이 인정돼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또 신 후보를 겨냥해 "이 대통령과 이간질시켰다고 하는데 혼자 모든 것을 독점하는 '친명팔이' 하며 특정 세력의 대통령직

렘 만드는 것은 문제"라며 "신 후보와 강기정 후보 간 단일화 과정에서 누군가 개입했는데 불법 행위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신 후보는 "친명팔이라고 말하지 마라"며 "지지자들의 자발적 지지일 뿐 불법이 아니다.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응수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일부 후보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반박적으로 언급하며 지지 호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신 후보는 "대통령의 지원으로 시민이 풍요로운 삶으로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민국의 이재명, 광주·전남 민행배"라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이 대통령·김혜경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들고 "새로운 정치, 이재명 시대 정치로 바뀌어 한다. 이재명 정치는 민생이고, 실용이고, 속도다. 이재명의 속도, 실용으로 전남·광주를 신정훈이 바꾸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토론회를 지켜본 한 유권자는 "수준 낮은 토론회가 반복되면서 실망감만 커졌다"며 "통합 특별시의 미래를 그릴 심층 토론 없이 자질 검증에만 집중하는 것은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상가, 사무실(특)임대]

- 광주시내전역 대로변 최고요지
- 1층점포/2-10층사무실 평수다양
- 통건물: 300평/500평/1,000평/4,000평까지다양
- 특혜: 6개월무상(일부)/집기제공/보, 월세최저
- 승강기, 주차뺑뺑

[특수매물]

- 상호물물교환(웃돈도 드릴 수 있습니다)
- 감정가, 공시지가이하 급매물도 있습니다

[구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내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